



# 도시재생 뉴딜사업

100년의 철도 역사를 갖고 있는 익산시는 KTX 익산역과 함께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신도시 개발에 따라 KTX 익산역 주변인 구도심이 침체되어 익산시는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익산시는 역세권 개발을 위해 단순한 물리적 방식이 아닌 경제·사회·문화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도시 재생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사업 개요

- 기간/위치 : 2018~2022년 (6년) / 익산시 중앙동 일원
- 규모/사업비 : 18만 5천㎡ / 250억원
- 주 요 내 용
  - 기조생활 인프라 지원, 상권 활성화
  - 생활환경 개선, 문화관광 자원화 사업
  - 특화거리 조성 (역사가 문화로 시장길, 교복문화거리, 유니버설디자인 거리 등)
  - 마을기업 육성 (5년간 80여개, 중심시가지 재생)

## 구도심 활성화 전략 수립

-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16. 6. 30.)
- 익산시 도시재생 총괄코디네이터 임명 및 운영 ('17. 1. 17.)
- 익산시 도시재생 지원센터 구성 ('17. 6. 16.)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선정 (2017. 12. 14.)

## 경제·사회·문화 등을 아우르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주민공청회 개최, 지방의회 의견 청취 ('18. 2.)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승인 - 국토교통부 관문심사 시행 ('18. 6.)
-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2018. 6.~2022년)